

1, 2, 3세 유아의 의문문 사용 발달 연구

이 영 자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이 종 숙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이 정 욱

덕성여자대학교
교양학부

본 연구에서는 1세에서 3세까지 105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의문문 사용발달 양상을 조사 하였다.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문장으로 된 의문문 사용이 증가하고 일어문과 전보문으로 사용되는 의문문은 감소하였다. 초기에 의문억양으로만 생성되던 의문문 사용은 점차 감소하고 반면에 의문형 어미나 의문사에 의해서 생성되는 의문문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1세에 어미 '-지'가 가장 먼저 나타났으며 2세에는 '-지', '-까', '-니'가 나타났고 3세에는 '-냐'도 나타났다. 의문사는 의문 체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이 의문 부사어로 사용되었다. 의문 관형어는 아주 소수가 나타났고 의문 용언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핵심용어 : 영아 • 언어발달 • 의문문

서 론

유아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언어발달 단계에 따르는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한다(Elbers & Ton, 1985). 또한 부모나 주변의 다른 사람, 주변 현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으며 자신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한다.

유아는 1, 2, 3세 시기에 대부분의 구

어적 발달이 이루어지며, 단순한 일어표현에서 점차적으로 전보문 형태 표현, 완전한 문장 표현으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며 의사소통하게 된다. 유아의 구어적 표현수준에 따라 의문표현 방법은 다르다. 연구에 의하면 일어문을 사용하기 이전 용알이 표현시기에도 용알이로써 의문표현을 하게 되며 점차적으로 발달된 의문문의 사용이 이루어진다고 한다(Bruner, 1975; Schickedanz, 1993; Menyuk, 1969, 1981).

우리말에서 의문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말의 끝을 올리는 의문억양을 사용하거나, 의문사를 사용하거나,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면서 의문억양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1, 2, 3세 유아를 보육하는 사람은 유아가 이러한 의문문의 유형들을 언제부터 사용하는지 잘 알아 이들의 언어적 표현특징을 이해하고 상호작용 하여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초기 1, 2, 3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의문문 사용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연구된 것들이며 몇몇 사례적 연구결과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1세에서 3세까지 유아의 의문문 사용발달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가 사용하는 의문문의 문장구조는 어떠한가?
2. 유아의 연령에 따라 사용하는 의문문 유형은 어떠한가?
3. 유아의 의문사 의문문 사용 발달은 어떠한가?

이론적 배경

유아의 문장 표현 발달

영아의 구어 발달은 생후 만 1세 미만의 초기에는 울음으로 시작하여 가성적 울음, 쿠잉, 웅얼이 같은 언어적 행동이 나타나며, 만 1세경이 되면 단일 단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표현하는 일어문 형태가 나타난다. 일어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할 때는 실

제 단어를 사용하고 말소리와 단어를 연습할 때는 웅얼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웅얼이와 실제 단어가 뒤섞여 사용되어진다(Elbers & Ton, 1985). 영아는 동작 총족적 일어표현에서 점차 상황적 기능의 일어표현 단계인 참조 기능의 일어표현으로 진행하게 되며, 참조기능의 일어표현을 계기로 새로운 어휘의 학습이 활발해진다. 생후 18개월경이면 영아는 두 단어 또는 두 단어 이상의 다어(multi-words)로 된 아주 초보적인 문장을 형성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의 문장은 핵심적인 단어만으로 구성되는 전보문 형식을 띄게 된다. 전보문에서는 관사, 전치사, 접속사와 같은 기능어가 생략되며 내용어로서 주로 명사와 동사, 몇 개의 형용사와 부사가 사용된다. 대부분의 유아는 2세경이면 문장을 사용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일어표현을 구사하고, 문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아는 조사, 시제, 수동태, 의문문, 부정문, 복합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하는 문장에 이러한 문법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같이 유아의 구어적 발달은 일어문에서 전보문의 형태로, 그리고 점차 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구어발달의 일반적인 경향은 유아가 사용하는 의문문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1, 2, 3세 유아가 사용하는 의문문의 문장구조를 일어문, 전보문, 문장으로 구분하여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의문문의 생성요소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응답되기를 바라는 태도를 드러내는 문장 유형으로써 의문의 표현을 위한 통사구조를 갖게 된다. 영어의 의문문은 주어와 술어 동사의 도치법, 의문사, 상승조의 의문억양 중 어느 하나 내지는 몇 개의 결합을 형태적 특징으로 한다(조성식 외, 1990). 그러나 우리말은 우리말이 갖는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영어와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의문문을 형성한다. 우리말에서 의문문은 의문억양, 의문형 어미, 또는 의문사에 의해서 형성된다(김홍희, 1993; 이성구, 1983).

우리말에서 문장말미의 억양은 서법양식의 지표가 되며, 문장의 끝을 올리는 상승조(rising tone)의 의문억양에 의해서 의문문이 형성된다. 문장말미의 억양은 서법의 현시적 표식인 어미가 나타나지 않는 문장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며, 서법의 현시적 표지인 어미가 있어도 억양의 차이에 의해서 발화의 양상의 차이를 보인다(이성구, 1983). 따라서 문장의 형태상 의문사나 의문어미 같은 의문의 현시적 표식이 드러나지 않을 때 억양을 통해 의문의 의미를 전달한다.

주어와 술어동사의 어순이 도치되는 영어의 의문문과는 달리 우리말의 의문문은 어순의 변동없이 동사의 어미가 굴절되어 의문형 어미에 의해서 형성되는 특성을 지닌다. 우리말에서 의문형 어미의 기본형은 '-지, -까, -냐, -니'이며(서정수, 1993), 의문사, 의문억양, 문맥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의문이 성립된다(서순희, 1993). 의문문에서 흔

히 나타나는 어미 '-어'는 서술문이나 명령문에서도 함께 쓰이고, 의문사, 의문형억양 등의 형태론적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의문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되므로 의문형 어미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의문문 형성의 또 다른 요소인 의문사는 의문을 나타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다른 요소의 출현 없이도 의문사 단독의 일어문으로 의문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우리말에서는 영어에 비해 훨씬 다양한 의문사가 사용된다. 서정수(1996)는 우리말에서의 의문사를 문장에서 차지하는 자리나 형태론적 특질에 따라 의문 체언, 의문 관형어, 의문 부사어 및 의문 용언으로 나누고 있다. 의문 체언(무엇, 누구, 얼마, 몇, 언제, 어디)은 의문사가 문장에서 체언의 자리에 놓이고 기능표지나 조사가 덧붙여지므로 체언 상당어가 되며, 그것으로 가르켜 묻는 말도 체언이나 명사구에 속한다. 의문 관형어(무슨, 어떤, 어떠한, 어느, 누구의, 몇, 웬)는 문장에서 관형어의 자리에 쓰인다. 의문 부사어(어떻게, 왜, 어째서, 얼마나, 언제, 어디에, 어디에서, 어디로)는 용언 앞에 놓여 부사어적인 특성을 드러내며, 부사어의 기능을 묻는 구실을 한다. 의문 용언(어찌하다, 어떠한, 어떻게)은 동사와 형용사에 해당하는 구문론적 또는 형태론적 특성을 드러낸다.

의문문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위에서 살펴본 우리말 의문문 형성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할 때 언어습득을 시작하는 유아초기에 의문문의 사용이 어떻게 발달해 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몇몇 연구들을 제외하고는 유아초기의 의문문 발달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승렬(1968)은 14개월 경의 영아가 '어길(여기)'과 '어길?(여기?)'을 전자의 경우는 억양을 내리고 후자는 억양을 올림으로써 서술문과 의문문으로 구별하여 사용했다고 보고하였다. 유아의 한국어 습득과정에서 정보를 구하는 의문문의 '-어?'는 요청의 '-어'나 단언의 '-어' 및 서술문 어미 '-다'보다는 상당히 늦게 나타나지만 1년 반 이후에는 자리잡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정민, 1997). 의문문에서 사용되는 어미 '-어?'는 요청과 주장의 경우와 달리 억양이 올라감으로써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에 서법상으로 쉽게 분류할 수 있다. Kim(1992)은 2세경의 유아는 '-니?', '-까?', '-지?'와 같은 의문형 어미를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인섭(1974)은 유아가 3년 2개월과 4년 2개월에 사용한 의문문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문장의 끝을 올리는 억양표식만에 의해서 형성되는 의문문(예: 엄마?)은 약화되는 반면에 의문사나 의문형 어미와 같은 의문소에 의해 의문문이 생성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한 두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의 결과이므로 보다 많은 수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문문의 형성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문문의 형성요소(의문억양, 의문형 어미, 의문사)를 중심으로 분석할 때 1, 2, 3세 유아가 사용하는 의문문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함께 유아가 사용하는 일어문 형식, 전보문

형식, 그리고 문장형식의 의문문을 의문문의 생성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을 때는 어떠한 유형들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의 의문사 의문문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유아가 의문사를 획득하는 순서를 중심으로 의문사 의문문의 발달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영어, 독어, 일본어를 사용하는 유아들의 의문사 의문문 발달과정을 연구한 비교문화연구 결과들(Bloom, Merken & Wooten, 1982; Wode, 1974; Okubo, 1967)은 특정 언어와 관계없이 의문사 습득이 'what'과 'where'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who'가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how'와 'why'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when'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유아가 의문사 의문문을 사용할 때는 여러 의문사의 기저에 깔려있는 개념, 즉 '어디?'의 경우는 장소라는 개념, '왜?'의 경우는 인과관계와 같은 개념을 이해한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각 의문사의 습득은 유아가 해당 의문사와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는 인지발달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이루어진다고 본다(Clancy, 1989). Ervin-Tripp(1970)는 유아들에게 가장 먼저 획득되는 의문사는 '지금, 여기(here and now)'에 있는 물건이나 사상에 관련되는 것이며, 나중에 획득되는 의문사는 위치나 시간에 있어서 추상적이며 먼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Bloom, Merkin과 Wooten(1982)은 발달계열상 먼저 획득되는 what, where, who는 그것이 대치할 수 있는 주요 문장요소를 묻기 때문에 구문상으로 매우 단순하지만, 나중에 획득되는 how, why, when은 주요 문장요소를 대치하지 않고 문장내 모

든 요소간의 의미적 관계에 적합한 정보를 묻기 때문에 구문적으로 복잡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구문적 복잡성의 차이가 유아의 사고의 인지적 복잡성을 요구하며, 이는 의문사 획득순서에 반영된다고 본다.

Clancy(1989)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1년 8개월과 1년 10개월된 유아 두 명이 각자의 어머니와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에서 나타내는 의문사 의문문의 산출과 이해를 1년동안 관찰하여 의문사 의문문의 발달과정을 분석하였다. Clancy는 연구대상 유아들의 10가지 의문사, '뭐', '어디', '어떻게', '누구', '왜', '무슨', '어느', '어떤', '몇', '언제'의 습득순서를 분석하였다. 유아들은 1년 8개월과 1년 11개월경에 의문사 의문문 '뭐야?'와 '어딤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그 이후로 '뭐해?'와 '어떻게?'가 나타났으며, '왜?', '누구?'의 순서로 의문사 의문문이 나타났다. 의문사 '무슨', '어떤', '어느', '누구의'와 같이 관용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났다으며, 연구대상이었던 두 명의 유아 모두가 관찰기간 동안 의문사 '언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Clancy는 한국어의 의문사 습득 순서가 다른 언어권(영어, 독일어, 서보-크로에시언, 일본어)에서의 의문사 습득 순서와 유사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Clancy는 개별 유아간의 의문사 습득 순서에서 나타나는 부분적인 차이는 양육자와 유아사이의 상호작용 스타일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양육자가 빈번히 사용하는 특정한 의문사와 이들 의문사에 대한 개별 유아의 선택이 의문사 습득 순서에서 유아간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손병환(1985)은 4, 5, 6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험상황에서 6가지 의문사 '누가', '무엇을', '어디', '언제', '왜', '어떻게'에 대한 이해수준을 분석하여 의문사 획득순서를 살펴보았다. 4, 5, 6세 유아들의 각 의문사에 대한 이해수준은 일반적으로 '누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어디', '무엇', '언제', '어떻게', '왜'의 순서로 낮게 나타났다. 손병환은 이러한 결과가 Bloom과 그의 동료들(1982)이 제시한 각 의문사의 인지적 복잡성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Clancy와 손병환의 연구외에는 우리나라 유아의 의문사 획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연구들에서는 영어의 wh-question에 대응되는 의문사를 중심으로 유아의 의문사 획득이 분석되었다. 그러나 우리말에서의 의문사는 영어보다 다양하게 사용되고, 구문론적 특성이 다르므로 우리말 의문사 범주에 기초하여 유아들의 의문사 획득순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정수(1996)가 제시한 우리말 의문사 범주-의문 체언, 의문 관형어, 의문 부사, 의문 용언-를 사용하여 1, 2, 3세 유아의 의문사 획득순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유아들의 의문사 의문문의 이해 및 산출은 문장구조의 복잡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찬(1997)은 의문사가 주어역할을 하는 '주어 의문문'과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어 의문문'은 문장 구조의 복잡성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누가 소를 때려?'와 같은 주어 의문문은 '누가'라는 의문사가 '소를 때려'라는 동사구 밖에 위치해 있고, '소가 누구를 때려?'와 같은 목적어 의문

문은 '누구'라는 의문사가 '누구를 때려'라는 동사구 안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어 의문문의 문장구조가 덜 복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말에서 의문사는 깊이 내포되어 있을수록 구조가 복잡해지므로 유아들은 구조가 덜 복잡한 주어 의문문은 비교적 잘 이해하고 산출할 수 있지만 구조가 좀 더 복잡한 목적어 의문문은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실제로 Hanna & Wilhelm(1992)은 영어 사용 유아들의 의문사 의문문 습득에 대한 산출 실험을 한 결과, 4세 유아의 경우 주어 의문사 의문문이 목적어 의문사 의문문보다 쉽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김성찬(1997)은 2세에서 8세 유아를 대상으로 우리말 의문사 의문문의 이해 및 산출실험을 실시한 결과, 이해실험에서는 유아들이 주어 의문문(예: '누가 소를 때려?')과 목적어 의문문(예: '소가 누구를 때려?')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난이도상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산출실험에서는 유아들이 주어 의문문을 목적어 의문문보다 쉽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특히 대상 유아들의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6, 7, 8세 유아들은 산출실험 결과 주어 의문문(98~100%)과 목적어 의문문(91~100%)을 거의 동일한 비율로 제대로 사용하였으나 3, 4, 5세 유아들의 경우에는 주어 의문문(86~100%)과 목적어 의문문(0~55%)을 제대로 사용하는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인위적인 실험상황에서 나타난 김성찬의 연구 결과가 1, 2, 3세의 어린 유아들의 자연적인 발화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의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성찬의 연구에서는 의문사 '누구'에 한해서만 조사하였

으나 유아들의 자연적인 발화에서 나타나는 다른 의문사들의 경우에도 주어 의문문과 목적어 의문문의 산출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말 의문사의 범주에 따르면 의문 체언의 경우는 문장안에서 주어, 목적어, 또는 보어로 사용될 수 있다. 유아들이 흔히 말하는 '이거 누구야?', '이거 뭐야?'와 같은 경우 의문사 '누구'와 '무엇'은 보어로 사용된다. 김성찬의 주장에 의거한다면 보어 의문문도 의문사가 내포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문장구조가 덜 복잡하고 따라서 유아들의 이해 및 산출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예측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 2, 3세 유아의 자연적인 발화에서 의문 체언으로 쓰여진 의문사들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라서 주어 의문문, 목적어 의문문, 보어 의문문의 산출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중류층에 속하는 유아 105명으로 1세아 39명(여 18, 남 21), 2세아 36명(여 17, 남 19), 3세아 30명(여 12, 남 18)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절차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머니와의 상호 작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구어발달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9명의 연구보조자들이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 105명의 가정을 개별 방문하여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

작용을 1시간동안 관찰·녹음하였다. 연구보조자들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대학원 졸업자와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었다. 녹음된 자료는 모두 전사본을 만들었으며, 이 전사본과 관찰·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개별 유아에 대한 기록지를 작성하였다. 연구 대상 유아의 개별기록지를 가지고 유아의 의문문 발달 정도를 분석하였다.

자 료 분 석

유아가 사용하는 의문문의 문장구조를 일어문, 전보문, 문장으로 구분하여 개별 유아가 사용한 전체 의문문 수에 대한 각 범주별 빈도의 백분율을 구하였다. 개인별 백분율을 사용한 이유는 개별 유아가 사용한 의문문의 수가 서로 다르므로 단순한 빈도의 합이나 평균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의문문의 문장구조에서 일어문은 단일 단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표현하는 것, 전보문은 조사, 관사, 전치사, 접속사와 같은 기능어가 생략되며 핵심적인 단어만으로 구성되는 전보형식의 문장으로 정의하였다. 문장은 기능어를 포함한 주요 품사가 적절하게 사용된 완전한 문장을 의미한다.

의문사는 개별 유아가 사용한 의문사의 종류 및 사용빈도와 빈도의 백분율, 그리고 최초로 출현한 시기에 의해서 분석되었다. 의문문의 문장구조와 의문사 사용이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이 실시되었으며, Scheffé 사후검증이 실시되었다.

또한 유아가 사용하는 의문문을 의문문 생성요소에 의해서 의문억양에 의한 의문문, 의문형 어미에 의한 의문문, 의문사의 의문문으로 구분하여 연령별로 이들 의문

문이 나타나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의문형 어미와 의문사가 함께 사용된 의문문의 경우는 의문사에 보다 초점을 두어 의문사의 의문문으로 간주하였다. 문장구조의 각 범주, 즉 일어문, 전보문, 문장안에서 나타나는 의문문의 유형들을 의문문 생성 요소에 의해서 세부 분석하였다.

의문사를 포함하는 의문문은 서정수(1996)에 근거하여 의문 체언, 의문 관형어, 의문 부사어, 의문 용언의 범주로 분류하여, 그 최초 출현 예를 조사하였으며, 사용빈도와 백분율을 연령별로 일원변량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é를 사용하였다. 또한 의문 체언의 경우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세분하여 연령별 사용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일원변량분석하였다.

연구 결 과

유아의 의문문 발달은 1, 2, 3세 연령에 따른 의문문의 문장 구조(일어문, 전보문, 문장), 의문문의 형성 요소, 그리고 사용된 의문사 범주의 차이에 의해서 분석되었다. 또한 문장구조의 각 범주, 즉 일어문, 전보문, 문장안에서 나타나는 의문문의 유형들을 의문문 형성 요소에 의해서 분석하였으며, 각 의문사가 나타나는 최초의 시기를 분석하였다. 의문 체언에 속하는 의문사들은 문장 성분에 의해서, 즉 주어, 목적어, 보어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령에 따른 의문문의 문장구조 분석

개별 유아가 사용하는 의문문의 문장구조를 일어문, 전보문, 문장으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 빈도와 개별 유아가 사용한 전

체 의문문의 수에 대한 백분율을 구하였다. 각 범주별로 개인별 백분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령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1>에 제시되어 있다. <표1>에서 보이듯이 1세아는 의문문을 사용하지 않아서 0%가 되는 유아가 많기 때문에 일어문, 전보문, 문장의 평균백분율의 합이 60%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세와 3세아의 경우는 일어문, 전보문, 문장의 평균백분율의 합이 80%정도로 나타나서 의문문을 사용하지 않은 유아의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일어문, 전보문, 문장으로 된 의문문의 사용백분율^a에 대한 연령별 평균(표준편차) 및 일원변량분석

연령	일어문	전보문	문장
1세	24.81 (37.06)	4.04 (17.71)	27.56 (37.85)
2세	29.91 (31.68)	3.70 (7.75)	46.94 (36.88)
3세	16.20 (17.52)	2.02 (4.53)	61.78 (35.09)
F	1.65	.27	7.53 [*]
Scheffé검증			3세>1세

* $p < .001$

a 여기에서의 백분율은 개인별 의문문 사용 백분율의 평균임.

일어문, 전보문, 문장으로 나타난 의문문이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장에 있어서만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문장으로 된 의문문은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용이 증가되었으며, 사후검증 결과 1세와 3세간

의 차이가 유의하였다(<표1> 참고).

연령에 따른 의문문 형성의 요소 분석

의문문은 문장의 끝을 올리는 의문억양만에 의해서 형성되는 의문문, 의문형 어미 '-지, -까, -냐, -니'에 의해서 형성되는 의문문, 그리고 의문사를 사용하여 형성되는 의문문으로 구분하여 연령별로 이들 의문문이 출현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표 2. 의문사, 의문형 어미, 의문억양에 의한 의문문의 연령별 빈도(백분율)

연령	의문사	의문형 어미	의문억양	합 계
1세	40(30.54)	4(3.05)	87(66.41)	131(100)
2세	127(59.35)	29(13.55)	58(27.10)	214(100)
3세	166(56.46)	73(24.83)	55(18.71)	294(100)

<표2>에서 보이듯이 1세아는 의문억양에 의해서 형성되는 의문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나 2세와 3세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의문억양만에 의해서 형성되는 의문문은 감소하였다. 반면에 2세와 3세 유아에게서 의문형 어미와 의문사에 의해서 형성되는 의문문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세와 3세 유아는 사용한 전체 의문문의 50% 이상이 의문사에 의해서 형성된 의문문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사용된 의문형 어미의 종류는 1세는 의문형 어미 '-지' 하나만이 나타났다고, 2세는 '-지', '-까', '-니'가 나타났다으며, 3세는 '-지, -까, -냐, -니'가 모두 나타났다. 다음은 특정한 의문형 어

미를 사용한 의문문이 최초로 출현한 예이며, 산출한 유아의 연령을 팔호속(개월; 일)에 명시하였다.

- '-지' : 언니 울지? (23;01)
- '-까' : 엄마, 또 해볼까? (28;07)
- '-니' : 잘 갔다 왔니? (35;03)
- '-냐' : 백원이나? (37;02)

의문문의 유형 분석

일어문, 전보문, 문장의 형태로 이루어진 의문문들은 의문문 형성의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일어문으로 나타난 의문문

일어문으로 된 의문문은 2가지 유형, 즉 의문억양에 의한 의문문과 의문사에 의한 의문문으로 나타났다. 의문억양에 의한 의문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 명사/대명사 + 의문억양 (↗, 끝을 올림) : 엄마?, 그물?, 이거?
- 명사/대명사 + 조사 + 의문억양 (↗, 끝을 올림) : 오빠는?, 연필은?, 이거는?
- 서술어(동사, 형용사) + 의문억양 (↗, 끝을 올림) : 싸워?, 온데?, 아셔?
- 부사어 + 의문억양 (↗, 끝을 올림) : 다음에?, 여기에?, 즐겁게?

일어문에서 의문사에 의한 의문문은 단순히 의문사만을 사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예) 뭐?, 왜?, 어디?

전보문으로 나타난 의문문

전보문으로 나타나는 의문문의 형태도 일어문과 마찬가지로 의문억양에 의한 의

문문과 의문사에 의한 의문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의문억양에 의한 의문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 대명사 종결 + 의문억양 (↗, 끝을 올림) : 선생님 꺼?, 이런 거?, 나 이거?
- 동사 종결 + 의문억양 (↗, 끝을 올림) : 엄마 해?, 형 와?
- 부사 종결 + 의문억양 (↗, 끝을 올림) : 여기 이렇게?

의문사에 의한 의문문은 의문사가 문장의 끝에 오는 형태로 나타났다.

예) 간식 뭐?, 하마 어디?, 굴 뭐?

문장으로 나타나는 의문문

문장으로 나타나는 의문문의 형태는 의문억양만에 의해서 형성되는 의문문, 의문형 어미('지, -까, -냐, -니')에 의해서 형성되는 의문문, 그리고 의문사를 사용하여 형성되는 의문문의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의문사에 의한 의문문은 의문사와 함께 의문억양, 의문형 어미 중 어느 하나 또는 이들 모두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 의문억양에 의한 의문문: 이거 묻혔지요?, 개미가 먹어?
- 의문형 어미에 의한 의문문 : 내가 만 들어 줄까?, 잠자리 잡아 봤지?
- 의문사에 의한 의문문: 엄마가 왜 이렇게 했지?, 숟가락 어디 있어요?, 호랑이랑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기게?

의문사 분석

개별 유아가 사용한 의문사를 의문 체언, 의문 관형어, 의문 부사어, 의문 용언의 범주로 분류하여 각 범주별 빈도와 개별 유아가 사용한 의문사 의문문의 총 수에 대한 백분율을 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1, 2,

3세 유아들은 의문사 범주중에서 의문 용언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료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3>에서 보이듯이 유아들은 의문 체언을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의문 관형어의 사용 백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의문사 범주의 사용이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의문 부사어에 있어서만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문 부사어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의 사후검증 결과 3세와 1세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표3> 참고).

표 3. 의문사 범주 사용 백분율에 대한 연령별 평균(표준편차) 및 일원변량분석

연령	의문 체언	의문 관형어	의문 부사
1세	25.43 (40.37)	.26 (1.60)	7.65 (20.67)
2세	45.08 (42.80)	9.32 (22.45)	15.04 (26.13)
3세	43.52 (35.71)	7.44 (20.22)	25.70 (28.40)
F	2.76	2.95	4.44*
Scheffé 검증			3세>1세

* $p < .05$

본 연구에 참여한 1, 2, 3세 유아들이 의문 체언, 의문 관형어, 의문 부사어로서 사용한 구체적인 의문사들이 아래의 <표 4>에 요약되어 있다.

표 4 의문 체언, 의문 관형어, 의문 부사로 사용된 의문사의 연령별 빈도(백분율)

	1세	2세	3세
의문 체언	무엇 (70.00)	58 (45.67)	80 (48.19)
	누구 (0.00)	7 (5.51)	13 (7.83)
	어디 (0.00)	1 (.79)	5 (3.01)
	얼마 (0.00)	0 (0.00)	2 (1.21)
의문 관형어	무슨 (0.00)	8 (6.30)	4 (2.41)
	어떤 (0.00)	12 (9.45)	0 (0.00)
	누구의 (2.50)	4 (3.15)	3 (1.81)
의문 부사어	왜 (17.50)	14 (11.02)	34 (20.48)
	어떻게 (2.50)	2 (1.57)	1 (.60)
	어디에 (7.50)	16 (12.60)	12 (7.23)
	어디로 (0.00)	5 (3.94)	9 (5.42)
	언제 (0.00)	0 (0.00)	2 (1.21)
	필로 (0.00)	0 (0.00)	1 (.60)
합계	40 (100)	127 (100)	166 (100)

유아들이 사용한 의문 체언은 '무엇', '누구', '어디', 그리고 '얼마'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의문 체언 '무엇'이 1, 2, 3세아 모두에게서 가장 빈번히 나타났고, '얼마'는 3세아에게서 단 2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세아는 '무엇'외에는 다른 의문 체언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문 관형어는 '무슨', '어떤', 그리고 '누구의'가 사용되었으나 의문 체언이나 의문 부사에 비해서 사용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세아는 '누구의'

를 단 1회 사용한 것외에는 의문 관형어의 사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은 2세아만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이 사용한 의문 부사어로는 '왜'가 가장 빈번히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어디에'가 자주 나타났다. 그 외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어디로', '어떻게', '언제', 그리고 '필로'와 같은 의문 부사어가 나타났다. '언제'와 '필로'는 3세아만이 드물게 사용하였다.

유아가 사용한 의문문에서 각 의문사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를 분석한 결과, 의문 체언 '무엇'은 20;18개월의 유아에게서 처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의문 부사어 '왜', '어떻게', '어디에'가 모두 23개월의 유아들에서 나타났으며, 의문 관형어 '누구의'가 23;03개월의 유아에게서 처음 나타났다. 의문 체언 '누구'는 27;20개월, 의문 부사어 '어디로'는 28;02개월, 의문 관형어 '어떤'과 '무슨'은 28;22개월의 유아에게서 최초로 나타났다. 의문 체언 '어디'는 35개월, 의문 부사어 '언제'는 40;24개월, 의문 체언 '얼마'는 40;29개월, 의문 부사어 '필로'가 41;06개월의 유아에게서 처음 나타났다.

다음은 각 의문사가 최초로 나타난 의문문의 사례이다.

- 무엇: 뭐?(20;18)
- 왜: 왜요?(23;00), 이거 왜요?(23;00)
- 어디에: 아줌마 어디에 갔지?(23;00)
- 어떻게: 개미 어떻게 먹어요?(23;00)
- 누구의: 이거 누구꺼예요?(23;03)
- 누구: 누구야?(27;20)
- 어디로: 어디로 타야돼?(28;02)
- 어떤: 어떤 거?(28;22)
- 무슨: 무슨 소리야?(28;22)
- 어디: 어디 놀러야 돼?(35;00)

- 언제: 엄마, 공룡은 언제 살아?(40;24)
- 얼마: 이거 얼마예요?(40;29)
- 필로: 그럼 필로 붙여요?(41;06)

의문 체언 '무엇', '누구', '어디', 그리고 '얼마'는 문장안에서 주어, 목적어, 또는 보어의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1, 2, 3세 연령에 따라서 각 기능으로 사용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표5>에서 나타나듯이 의문 체언 '무엇'은 1세아의 경우 보어로만 사용되었고, 2세와 3세아는 주어, 목적어, 보어의 3가지 형태로 모두 사용하였다. 그러나 주로 보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어로 사용되는 사례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의문 체언 '누구'는 1세아의 경우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2세와 3세아에게서 주어와 보어로 사용되었으나 주어로 사용된 경우가 보다 많았다. 1, 2, 3세아 모두에게서 목적어로 사용된 사례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의문 체언 '어디'는 유아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세아의 경우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세아도 목적어로 단 1회가 나타났다. 3세아는 주어와 보어로 사용하였으나 주어는 1회에 불과하고 보어가 보다 많이 나타났다. 의문 체언 '얼마'는 3세아에게서 보어로만 2회가 나타났을 뿐이다.

다음은 의문 체언 '무엇', '누구', '어디', '얼마'가 문장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된 예들이다.

<무엇>

- 주어: 뭐가 이렇게 많이 있어?
- 보어: 이거는 뭐예요?

〈누구〉

· 주어: 누구가 아직도 언니야?

· 보어: 누구세요?

〈어디〉

· 주어: 어디 아픈데?

· 목적어: 어디 놀러야 돼?

· 보어: 큰 냄비 어딴어?

〈얼마〉

· 보어: 이거 얼마예요?

· 목적어: 여기다 뭐 줄까요?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1, 2, 3세 유아의 의문문 사용을 문장의 구조, 의문문 형성 요소, 의문사의 종류와 출현 순서라는 면에서 분석하였다. 유아의 말하기 행동은 일어표현에서 시작하여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서 전보문 형태를 거쳐서 완전한 문장으로 발달하여 간다. 본 연구에서는 의문문에 있어서도 유아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문장형태로 된 의문문 사용이 증가됨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일어문과 전보문 형태의 의문문 사용에 있어서는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말이 구어에 있어서는 전후 맥락에 의존하여 생략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성인의 언어에서도 "왜?", "그거 했어?", "맞어?" 등과 같이 의사소통의 전후 맥락에 의존하여 주어, 목적어 등의 문장 성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따라서 일어문이나 전보문 형태의 의문문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유아들이 사용한 일어문이나 전보문으로 된 의문문은 유아들의 문장사용 능력의 부족에서 뿐만 아니라 전후맥락에 의존한 생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연령증가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 2, 3세 유아들이 사용하는 의문문을 의문문 형성의 요소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문장의 끝을 올리는 억양표식만에 의한 의문문 사용은 감소하고, 반면에 의문형 어미나 의문사와 같은 의문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의문문은 증가하는 것으로

표 5. 의문 체언의 문장기능에 따른 연령별 사용빈도(백분율)

	1세	2세	3세	합계
무엇	주어 (0.00)	2 (1.21)	10 (6.02)	12 (7.23)
	목적어 (0.00)	21 (12.65)	11 (6.63)	32 (19.28)
	보어 (16.87)	35 (21.08)	59 (35.54)	122 (73.49)
누구	주어 (0.00)	5 (25.00)	8 (40.00)	13 (65.00)
	목적어 (0.00)	0 (0.00)	0 (0.00)	0 (0.00)
	보어 (0.00)	2 (10.00)	5 (25.00)	7 (35.00)
어디	주어 (0.00)	0 (0.00)	1 (16.67)	1 (16.67)
	목적어 (0.00)	1 (16.67)	0 (0.00)	1 (16.67)
	보어 (0.00)	0 (0.00)	4 (66.66)	4 (66.66)
얼마	주어 (0.00)	0 (0.00)	0 (0.00)	0 (0.00)
	목적어 (0.00)	0 (0.00)	0 (0.00)	0 (0.00)
	보어 (0.00)	0 (0.00)	2 (100)	2 (100)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 1명을 대상으로 행한 이인섭(1974)의 사례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문형 어미로 형성되는 의문문에서는 어미 '지'가 가장 먼저 나타났는데, 이는 어미 '지'의 성격이 완전한 의문형 어미인지 아니면 서술형 어미에 의문 억양이 첨가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서순희, 1993; 이영민, 1989)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순희의 주장처럼 어미 '지'가 의문사, 의문형 억양 등의 형태론적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의문문으로 해석이 가능한 비의문형 어미라면 유아가 어미 '지'를 다른 의문형 어미보다 빨리, 쉽게 산출하는 것은 서술형 어미로 사용해 오던 어미 '지'에 억양만을 상승조로 하여 의문문으로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의문형 어미를 획득하여 의문문을 형성하는 것 보다 용이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문사 의문문을 의문체언, 의문 관형어, 의문 부사어로 분류하였을 때 의문 체언으로 사용하는 의문문이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문 체언 중에서도 '무엇'의 사용 때문으로 보이는 데, 유아들은 다른 의문 체언, '누구', '어디', '얼마'와는 달리 '무엇'을 가장 먼저 사용하였고 또한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무엇'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초기 유아 언어가 주로 주변의 사물에 대한 의문이나 명칭에 대한 의문을 표현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는 본 연구에서 의문 체언 '무엇'이 '뭐야?'와 같은 보어의 형태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결과로도 지지된다.

Clancy(1989)는 한국어의 의문사 습득순서가 다른 언어권에서의 의문사 습득순서와 유사하며, '뭐야?', '어뻐?'가 최

초로 출현하고, 그 이후로 '뭐해?'와 '어떻게?'가 나타났으며, '왜?', '누구?'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관형어로 사용되는 의문사 '무슨', '어떤', '어느', '누구'의 '는' 매우 드물게 나타났으며, '언제'는 관찰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무엇'이 20;18개월의 유아에게서 최초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어디에', '어떻게', '왜'가 23개월의 유아들에게서 나타났다. '누구'는 27;20개월, 그 이후로 '언제'가 40;24개월의 유아에게서 나타나므로써 Clancy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순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유아들도 Clancy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의문 관형어의 사용이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1, 2, 3세 유아들에게 있어서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종류를 가르쳐 묻는 일이 인지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김성찬(1997)은 2세에서 8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의문사 의문문 산출실험에서 유아들이 주어 의문문('누가 소를 때려?')을 목적어 의문문('소가 누구를 때려?')보다 쉽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 2, 3세 유아들의 자연적인 발화에서 나타난 의문사 의문문을 분석한 결과 의문사 '누구'는 1, 2, 3세 유아 모두에게서 목적어로 사용된 사례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서 김성찬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찬의 연구에서는 의문사 '무엇'을 사용한 산출실험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자연적인 발화에서 나타난 의문사 '무엇'이 2세와 3세아에게서 목적어로 사용된 사례가 주어로 사용된 사례보다 많이 관찰되었다. 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문장이 사물을 주어로 사용

하기 보다는 사람이 주어가 되는 문장이 대부분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아가 주어 의문문과 목적어 의문문을 산출하는 난이도는 의문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의문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의문사가 목적어로 사용되기 보다는 보어로 사용되는 보어 의문문('이거 누구야?')의 산출이 많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측했던 대로 보어 의문문도 주어 의문문과 마찬가지로 의문사가 내포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문장 구조가 덜 복잡하고 따라서 유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성찬(1997). 통사 규칙 발달. *새국어생활*, 7(1), 125-141.
- 김승렬(1968). 아동의 어휘습득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논문집*, 제1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국문학연구회.
- 김홍희(1993). 의문문의 특성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순희(1993). 현대국어 의문문의 형태론적 특징. *숙명여자대학교. 어문논집*, 3, 117-148.
- 서정수(1993). *국어문법의 연구*. 서울:한국문화사.
- 서정수(1996). *현대국어 문법론*. 서울:한양대학교 출판원.
- 손병환(1985). *취학전 아동의 의문사 이해수준과 관련변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구(1983). *국어의문의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민(1989). *국어 의문문에 대한 통사적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섭(1974). 유아문법(2): 현주(3;2, 4;2)의 언어를 중심으로. *서울여대 논문집*, 3, 13-33.
- 이정민 (1997). 언어습득과 화용규칙. *새국어생활*, 7(1), 143-178.
- 조성식 외 10인 편집 (1990). *영어학사전*. 서울: 신아사
- Bloom, L., Merken, S. & Wooten, J. (1982). Wh-questions: linguistic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sequence of acquisition. *Child Development*, 53, 1084-1092.
- Clancy, P. M. (1989). Form and function in the acquisition of Korean wh-questions. *Journal of Child Language*, 16, 323-347.
- Elber, L., & Ton, J.(1985). Playpen monologues: The interplay of words and babbles in the first-words period. *Journal of child language*, 12, 551-565.
- Elber-Tripp, S. (1970). "Discourse agreement: How children answer questions." J. Hayes(Ed.), In *Cognition and development of languag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Hanna, K. & Wilhelm, A. (1992).

- On the acquisition of Wh-question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at Manoe.
- Kim, Young-Joo. (1992). The acquisition of Korean(first draft). In D. I. Slobin(Ed.), *The Crosslinguistic study of language acquisition*, Vol. 4.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enyuk, P.(1981). *Language and maturation*. Cambridge, MA: The MIT Press.
- Menyuk, P.(1969). *Sentences children use*. Cambridge, MA: The MIT Press.
- Okubo, A. (1967). *Yooji gengo no hattatsu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Tokyo: Tokyodoo.
- Schickedanz, J. A., Schickedanz, D. I., Hansen, K., & Forsyth, P. D.(1993). *Understanding children*. Mountain View, CA: Matfield Publishing Company.
- Wode, H. (1974). Some stages in the acquisition of questions by monolingual children. In W. von Raffler-Engel (Ed.), *Child language-1975. Special issue of Word*, 27, 261-3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terrogative sentences in 1-, 2-, 3-year-olds.

Young-ja Lee	Jongsook Lee	Jeongwuk Le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t. of Psychology	Dept. of General Educa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of interrogative sentences produced by children from age 1 to 3. The Subjects were 105 children selected from day care centers and their neighboring agemates.

The usage of interrogative expression by using full sentences increased with age increase. As the age increased, the interrogative expression with rising tone decreased, while the interrogative expression with wh-question and interrogative inflections increased.

Among interrogative inflections, '-ji' first appeared at age 1, '-kka' and '-ni' appeared next at age 2, and '-nya' appeared last at age 3.

Among interrogatives interrogative pronouns were used most frequently and interrogative adverbs were used less frequently. A few interrogative determiners were used from the age 1.

Key Words : Infant and toddler • Language development • Interrogative Sentence